

여름철 자연재해 비상대응체계 구축

익산시, 재해취약지구 현장점검 강화·대비대책 수립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여름철 자연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7일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13개 시·군, 민·관·군, 전국건설기계협회 익산협의회 등과 상호 협조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특히 유관기관과 재난지원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재해취약지역 피해 예방 홍보를 강화하는 등 24시간 여름철 장마대비 비상대응체계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시는 단계별 비상근무에 필요한 농업·축산·도로 등 19개 분야에 총 8개 반, 199명으로 대책반

을 구성해 분야별 재해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풍수에 대비 현장 점검계획'을 수립해 공사 중인 사업장을 상시 관리하고 침수 우려지역 관료상태를 점검해 침수 및 침하 사전예방에 힘쓰고 있다. 시는 각 분야별 자체계획을 수립해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지침에 따라 체육·관광·공연장 시설 등의 공사 사업장 준비를 완료 또는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하수도 주요관로에 대해 CCTV로 조사를 실시한 후 침수우려지역인 영등동 약촌오거리 등 16곳, 32km의 하수관로에 대해 기계준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경지 침수 우려지역인 요교 1간선 외 31개 노선에 대한



7일 김용주 익산시 안전환경국 국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수로준설 공사를 장마 전 완료할 계획이며 농경지 부근인 마포배수지천과 함열천 주변 배수로 정비 사업(한국농어촌공사)을 연중 추진한다.

이 밖에도 비상급수와 쓰레기 처리 대책, 매립장 전기설비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했고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도 정비했다. 위기 전 공사완료가 필요할 것으로 진단된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용주 안전환경국장은 "매년 여름철이면 시민들이 집중호우(장마)로 인한 자연재난을 걱정한다"며 "올해는 호우(장마) 대비 비상대응체계 가운데 행정력을 집중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익산서동축제 2019 현장.

'빛으로 물든 금마저' 서동축제 2019 성료

'빛으로 물든 금마저'라는 주제로 5월 3일부터 6일까지 열린 '익산서동축제2019'가 4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는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과 백제 부흥을 꿈꿨던 무왕의 이야기가 '빛'이라는 주제와 함께 로맨틱한 금마를 연출했으며 18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받았다.

익산의 인물 '서동'을 다양한 축제컨텐츠로 활용한 프로그램들도 돋보였다. '서동은 전설'을 토대로 한 서동 이야기를 마케기와 탐돌이 등을 통해 직접 체험해볼 수 있었고 백제 사람들로 분장한 전문 배우들이 연출하는 '서동 백제 사람들'은 축제장에 들어서는 순간 관람객이 백제로의 시간여행을 온 듯한 느낌을 갖게 만들었다.

무에 퍼포먼스가 가미된 '무왕행차 퍼레이드'는 백제 진영에서 출정한 군사들이 왕의 검을 전달하고 관람객과 순찰을 돌며 무왕과 병사들의 기개를 선보였다. 익산시 관계자는 "저녁에도 은은한 백제의 운치를 느낄 수 있는 수상 경관 유등은 훌륭한 종합 축제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람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축제였다"며 "앞으로도 서동축제가 익산을 대표하는 브랜드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제 프로그램과 관련 관광 컨텐츠를 강화하고 외지에서 찾아오는 관람객들 뿐 아니라 시민이 먼저 백제왕도 익산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대표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참여운동 전개

경제 활성화·UCC 동영상 등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오는 24일까지 '활기 넘치는 군산경제, 함께 만들어요'라는 주제로 군산사랑 UCC 동영상 공모전과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군산사랑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경제 활력 제고 정책 아이디어발굴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

역사랑 실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공모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 아이디어'와 '군산사랑 UCC 동영상' 2개 분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산사랑 시민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담으면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는 ▲지역기업의 제품 판매 확대방안 ▲골목상권(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방안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의 아이디어 정책 방안을 제출하면 된다. 군산사랑 UCC 동영상은 ▲군산 경제사랑 실천방안 ▲활기 넘치는 군

산을 위한 경제 활력 제고 방안 ▲지역 내 소비촉진 방안 ▲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건강한 지역 소비생활 유도 및 과급이 가능한 사항이 담긴 영상물을 제출하면 된다. 동영상은 2~3분 내외의 분량의 애니메이션, 광고(CF), 모션그래픽, 시트콤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본인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 후 참가신청서와 작품소개서를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서와 작품은 외부 전문가 심사료 총 12개 수상작품에 대해 상장과 총 430만원의 시상금(군산사

랑상품권)을 수여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향후 군산시 홍보매체를 통해 상영될 수 있으며, 시민에게 소개됨으로써 군산사랑 시민운동 홍보자료로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응모는 지역, 나이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기간인 오는 24일까지 군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작성 후 UCC는 전자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성우 지역경제과장은 "군산 지역사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형성을 위해 시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비상구 팹트로그램 설치"

익산소방서는 화재 시 대피유도를 위해 관내 대형마트, 호텔, 영화 상영관 등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물에 대해 비상구 대형 팹트로그램 설치를 독려한다고 밝혔다.

시각 디자인을 맡으며 비상구 팹트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시설 관계인의 비상구 유지관리 및 안전의식을 일깨우고, 시설 이용자들은 비상구 위치를 빠르게 파악 할 수 있어 화재 시 피난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백성기 익산소방서장은 "무엇보다도 인명 대피가 가장 중요하며 모든 시민이 피난 우선이라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익산시 자동차등록 번호판 발급수수료 대폭 인하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어려운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쓰레기봉투와 하수도 사용료 인하에 이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를 인하는 등 서민물가 안정정책을 추진한다.

8일 익산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를 승용차 기준 2만9천원에서 2만5천원으로 14% 인하한다고 밝혔다.

익산시의 번호판 발급수수료가 2만5천원으로 인하되면 도내에서 지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주시를 제외하고 제일 낮은 수준이며 수도권 수원시설

공단지나 안산시공사, 의정부시설 관리공단과 비교해도 낮은 단가다. 그동안 전국의 자동차등록번호판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익산시는 인접 시군에 비해 번호판가격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검토를 진행했지만 민간업체들에게 강제로 판매단가를 낮추라는 명령을 내릴 수 없어 지역운영까지 검토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시가 지역으로 운영할 경우 기존 번호판제작소 4개소가 경영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하고 교부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특히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업체 4개소도 익산시와 간담회를 갖고 인근 시와 가격비교 등을 통해 14% 인하하기로 최종 협의했다.

시 관계자는 "앞서 익산시는 쓰레기 봉투값 인하, 하수도 요금 인하 등 어려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번 자동차번호판 관련 비용 인하로 인해 조금이나마 서민부담이 덜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대책 마련 노력

군산시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7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

제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실적,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주민부담률, 폐기물 적정 처리 등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개

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안창호 경제환경혁신국장은 "제기된 의견을 내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7월부터 군산 주요노선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군산지역 전체 주요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에서 오는 7월부터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가 시작된다.

7일 시에 따르면 전체 120대 가운데 이용자가 많은 노선을 운행하는 40대의 시내버스에서 5월 1일부터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40대에서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한 후 올해 7월까지 잔여 시내버스 80대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시민의 통신비 절감과 무선인터넷 사용 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도비보조로 추진됐다.

공공 와이파이이용은 통신사와 상관없이 스마트폰의 와이파이 기능을 켜고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에서 'PublicWiFi@BUS_Free'를 선택하면 된다. 김인생 자치행정국장은 "대중교통 편의성 및 무선인터넷 접근성을 높여 승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원광대병원,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기관 선정

원광대병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전라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기관에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올해는 7개 지역에서 응모해 전북, 서

울, 강원외 의료기관이 각각 선정됐다.

재활의학과 주민철 교수를 센터장으로 재활의학과와 예방의학과 등 전문의료인인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익산=장영원 기자

푸르밀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